

# 광주·전남 문화예술기관에 부는 '여성 파워'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첫 여성관장 최경화 관장,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어령 광주박물관장 '이건희展' 광주관광재단 김진강 대표 '주목'

최근 광주·전남 문화예술기관에 여성 수장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리더십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목도 높은 전시를 유지하는 등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단행한 국·과장급 전보 인사에 따라 4급 과장급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수장을 맡게 된 최경화 신임관장은 개관 이래 최초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광주만의 정체성 확립에 나서고 있다. 1987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5개년

(2023-2027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부터 브랜딩, 조직 혁신, 예산 확보 등 국내외 박물관 패러다임에 맞춘 현안 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주력하는 행사는 오는 4월7일부터 8월27일까지 예정된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이다.

조선시대 향교와 서당부터 광주에 처음 생긴 근대학교·보통학교, 지역민의 성원에 따라 생겨난 광주의 학교, 100년 역사를 가진 광주의 학교 등 100여점의 전시 콘텐츠를 선보여 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신임관장의 '최초' 타이틀은 또 있다. 1987년 개관 이래 첫 여성관장으로 부임한 것. 최 관장은 "시민 친화적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를 구성해나갈 예정"이라며 "박물관대학 등 연령대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하고 2024년 개관을

앞둔 분청사기전시실의 리모델링 등 박물관 내외부를 재정비해 관람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12대 국립광주박물관장으로 취임한 이어령 신임관장은 첫 여성관장이었던 이수미 전임관장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를 시작,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한글박물관 전시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과장과 미술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 관장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주목받았다. 자신의 전공인 도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국립광주박물관을 아시아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

힌 바 있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도 특유의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 대표는 관광정보 회사를 창업한 이후 2003년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광주관광재단 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 민선 8기 광주시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 역량을 쌓은 광주관광정책의 전문가다.

김 대표는 '광주이용인구 3000만명 달성'을 올해 목표로 세우고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20주년 등 주요 행사를 활용해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0개의 창업기업 입주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의 초대 관장이 이지호

관장과 취임 2년째인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초대 사장도 여성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22일 개관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 관장은 지난 2년 동안 지역 출신 작가들을 발굴하는 전시를 넘어 지방미술관이라는 한계를 딛고 국제적 미술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지역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을 유치해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거장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지역민을 향한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취임 후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문화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갖출 것을 약속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새 봄' 가족의 평안 복락 기원 창극무대

시립창극단 '신춘' 공연 10일 광주북구문화센터 비나리·토끼이야기 선배

광주시립창극단이 올해 첫 무대로 가족의 평안과 복락 축원의 의미를 담은 기획공연 '신춘(新春)'을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춘' 공연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리' △계묘년을 맞이해 판소리 수궁가 '토끼 이야기' △2022년 새롭게 선보였던 '초무' △2023년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제작한 '진도씻김굿' 등으로 구성됐다.

'비나리'는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고 인간을 끼고도는 횡액을 막아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류인상(전통음악그룹 판 대표) 민족음악원 악장이 특별 출연한다.

'토끼 이야기'는 판소리 수궁가 중 별주부에게 속아 수궁에 내려간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며 용왕을 속이는 내용의

곡이다.

'초무'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추는 춤으로 마치 신을 유혹하 듯 요염하면서도 부드러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무용 작품이다.

'진도씻김굿'은 창극단이 올해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집안의 우환을 제거해 가족의 재수를 비는 내용이다. 박미옥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와 박성훈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가 특별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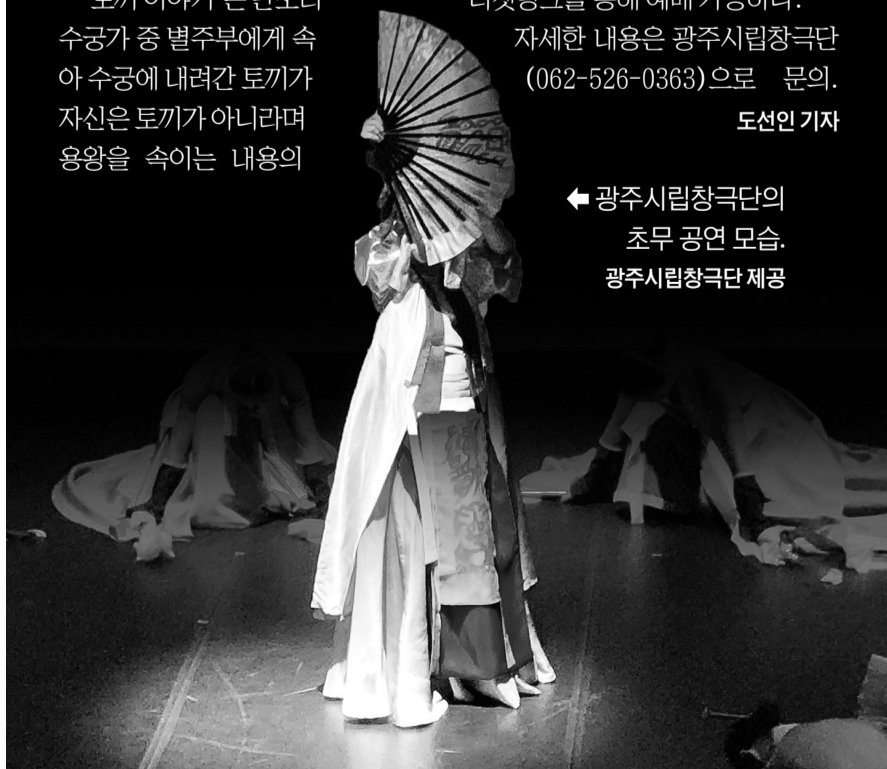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새롭게 맞이한 2023년 계묘년 한해가 가족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신춘 공연을 마련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축연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창극단의 기획공연 '신춘'은 8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원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창극단 (062-526-0363)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창극단의 초무 공연 모습.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 천연염색박물관, 동·서양 자수전시회 개최

나주천연염색재단, 4일까지 고향사랑기부단체품 전시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4일까지 나주 다시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동·서양 자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통 자수와 서양 자수가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통자수 박순정, 서양자수 김희진 작가의 작품 60여 점으로 구성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현 자수장전수장학생인 박순정 작가는 궁중할웃, 사신도(현무·주작·청룡·까치호랑이), 신구연화도, 두루주머니, 수저집 등 옷과 생활도구, 벽걸이 전통 자수 작품을 선보인다.

김희진 작가는 제50회 대한민국공예대전 문화재정장상을 수상했으며 감물·떡·쪽 등 전통염료를 무명, 모시 등 천에 염색



박순정 작 전통자수가 된 '궁중할웃'

한 후 그 위에 금사, 은사, 서양자수 기법을 접목시킨 작품을 내놨다. 쪽 염색한 모시에 금사, 은사로 무령왕릉 족좌의 국화문양을 표현한 '백제의 숨결(제목)' 작품이 대표적이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전통

자수와 서양자수를 한 장소에서 기법, 표현미, 색채미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나주시 고향사랑기부단체품 전시전도 함께 열리고 있다. **나주=박송엽 기자**

##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ACC, 12일까지 참여자 모집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도슨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만2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ACC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도슨트 활동을 위한 기초 이론교육과 해설 대본 작성법, 아시아문화 이해, ACC 소장품 이해와 활용, 전시해설 실습 등 모두 12회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12주 교육 후 모의 전시해설 발표와 함께 우수자에게는 ACC 도슨트(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며 오는 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 신청은 2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 ACC 누리집(<http://www.acc.go.kr>)에서 신청서류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 지역 한학자, 3·1절 맞아 日천황에 편지글

장성출신 노강 박래호 선생 '日정부에 권유하는 글' 낭독

3·1절을 맞아 지역의 한학자가 일본천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한학자 노강 박래호(81) 선생은 지난달 28일 광주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일본천황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사진)

'일본 정부에게 권유하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통해 "백제 때 왕인박사가 천자문을 전하고 조선시대 강항 선생이 유학을 가르쳐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

리고 포악으로 보답하니 하늘도 경악할 일이다"며 "아직도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을 위로하는 신사를 참배하고 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계획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춘추시대 위나라 거백옥이 50세에 49년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는데 늙장부리지 않았던 것처럼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리노라"고 말했다.

노강 박래호 선생은 장성 출신으로 성균관 부관장, 필암서원 선비학당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장성향교 유도회 회장으로 필암서원에서 50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한학을 강의해오고 있다. **도선인 기자**